

제약·바이오업계,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격돌

판매협력 등 경쟁력 확보 팔 걷어

셀트리온제약·대웅제약
‘스토보클로’ 출시... 공동 판매

삼바에피스·한미약품
양사 전문역량 바탕 마케팅 협력

HK이노엔·맵사이언스
품목허가 신청... 연내승인 목표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왼쪽)와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10월 셀트리온제약 서울사무소에서 ‘CT-P41(스토보클로 개발용) 공동판매 계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삼삼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왼쪽)과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오른쪽)이 지난 18일 ‘골다공증 치료제 국내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국내 주요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셀트리온, 삼삼바이오에피스 등이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각각 공동판매 협력을 맺으며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과 대웅제약이 국내 첫 번째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성분명: 데노수맙)’를 공식 출시한다.

스토보클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해당 품목허가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 남성 골밀도 증가 치료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

의 전체 적응증에 대해 이뤄졌다.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로는 스토보클로가 처음으로 국내 승인을 받아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 지위까지 확보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험 약가 등재 과정을 통해 ‘스토보클로프리필드시린지 60mg/1ml’ 약가는 11만1384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28% 낮은 가격이다. 또 스토보클로는 1회 주사로 6개월 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나 병원 방문 횟수, 의료진의 투약 관리 부담 등

에서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셀트리온제약과 대웅제약은 전국 종합병원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스토보클로 공동 판매에 나선다. 특히 대웅제약은 독자 구축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으로 스토보클로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삼바이오에피스는 한미약품과 협력해 국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삼바이오에피스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성분명: 데노수맙)’ 개발사로서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국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양사가 함께 추진한다.

삼삼바이오에피스는 현재 국내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2월 허가를 획득했다. SB16의 미국명과 유럽명은 각각 오스포미브, 오보텐스 등이다.

삼삼바이오에피스와 한미약품은 근골격계 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양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HK이노엔은 국내 프롤리아 바이

오시밀러 시장 공략을 위해 스페인 맵사이언스의 물질을 도입했다. HK이노엔과 맵사이언스는 지난 2022년 12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HK이노엔은 현재 국내에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연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들의 경쟁은 오는 5월 말~6월 초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널 의약품 프롤리아의 특허가 국내, 미국, 유럽 등에서 각각 올해 2월, 3월, 11월에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영향력은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 기업간의 공동판매 전략은 그동안 많이 이뤄져 왔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으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난다”며 “제품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유통 및 공급망까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삼바로직스, 바이오생태계 활성화 팔 걷어

서울대·연세대 상생기부 협약 체결
6억6500만원 상당 원부자재 전달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과 상생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삼바이오로직스 바이오플라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동중 삼삼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장,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김익연 연세대 약학대학 학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앞서 고객사인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 세포 배양 배지를 국내에 기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연구에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계 내 수요를 조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에 약 6억6500만원 상당의 원부자재 총 1090kg을 전달하게 됐다.



19일 오전 인천 송도 삼삼바이오로직스에서 열린 ‘상생기부 협약식’에서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왼쪽부터), 김동중 삼삼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김익연 연세대 약학대학 학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 소부장,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생협력센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김동중삼삼바이오로직스상생협력센터

장은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삼삼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가 대학과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연구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산학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코스맥스펫, 반려동물 건강·영양 연구 강화

대학, 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펫은 지난 18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단국대 천안산학협력단 및 스마트동물바이오연구소와 ‘반려동물 건강 및 영양 연구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첨단 연구기반 공동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코스맥스펫은 연구개발 총괄과 제품 승인을 맡았다. 코스맥스펫은 이번 연구 협력에서 코스맥스그룹이 보유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적극 활용한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효과가 있는 소재를 발굴해 임상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맥스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엔비티와 코스맥스바이오는 다양한 개별인정형 원료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코스맥스엔비티의 관절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인 ‘타베트리(타히보추출물)’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서 관절 건강에 대한 효능 검증을 마쳤다.

단국대 천안산학협력단은 연구계획 수립 및 효능 평가를 맡는다. 특히 스마트동물바이오 연구소는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갖춘 최첨단 연구시설에서 임상 시험과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진호정 코스맥스펫 대표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내 반려동물과 좋은 것과 좋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화장품과 건식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강스템바이오텍, ‘오스카’ 장기추적 유효성 확인

(골관절염 치료제)

무릎관절 전반 구조적 개선 관찰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 임상 1상에서 고용량군에 대한 12개월 장기추적 방문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에 따르면, 무릎관절 강 내 단회 주사투여 후 통증조절과 관절기능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서 6개월 시점과 마찬가지로 중용량군 및 고용량군의 모든 대상자에서 12개월 시점에서

도 개선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진 대상자들이 확인됐다.

MRI 영상평가에서 무릎관절 중 가장 손상이 심한 부위의 개선여부를 평가하는 MOCART는 6개월 시점에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개선 또는 손상의 진행 없음(10명 중 7명 개선, 1명 변화 없음)을 보였다.

전체 무릎관절 전반의 구조적 평가를 위한 WORMS에선 연골, 연골하골 재생 및 낭종, 활막염 개선 등을 통해 구조

적 개선이 관찰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중용량군과 고용량군 대상자들에게서 투약 후 신속하게 확인된 통증과 관절기능 개선이 12개월 시점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더 좋아진 환자도 있어 오스카의 근본적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12개월 영상평가가 완료된 저용량군과 중용량군은 6개월 시점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되거나 더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슈크림 음료 2종 200만잔 팔려

판매기간 2주일 연장 방침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3월 5일 선보인 슈크림 음료 2종이 출시 2주 만에 200만 잔 판매를 넘어서며 슈크림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의 통상 영업시간 내에 1초당 약 3잔씩 판매된 셈이다.

올해는 봄 시즌 스테디셀러 ‘슈크림 라떼’와 함께 슈크림 라떼를 말차 버전으로 재해석한 신규 음료인 ‘슈크림 말차 라떼’를 추가하며, 슈크림의 달콤함

은 물론 씹스러운 색다른 풍미의 슈크림 음료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올해 ‘슈크림 라떼’는 기존보다 당과 칼로리를 10%씩 낮춰 개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 같은 슈크림 음료의 인기에 힘입어 ‘슈크림 라떼’의 판매 기간을 2주일 연장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